



## 박소현의 섹.시.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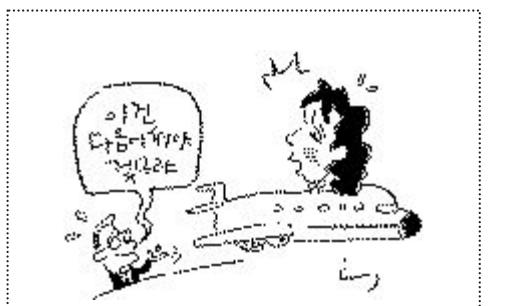
남편은 기러기 아빠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호주에서 2년째 살고 있다. 처음에는 애 입이나 뇌우자고 딱 1년만 계획하고 간 유학길이었지만 도저히 1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계산이 나왔고 결국 2년째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4년을 버티고 싶다는 바람이 크다. 아니 여기서 더 버틸 수 있다면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버티고 싶다.

사실 한국에 살 때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부간의 정이라고는 없어, 아이의 엄마 아빠로만 산 세월이 몇 년이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 대로 갈라서야 하나를 고민하던 무렵에 아이가 먼저 유학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기러기 가족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술 마시고 바람피울 수 있게 된 것이 좋았고, 아내는 아내 대로 남편의 그런 풀을 안보고 살 수 있으니 좋았다. 그런데 떨어져 산지 2년을 넘어서 얼마 전부터 더 없던 정이 생겨났다. 눈만 마주쳐도 화가 나던 일상인데, 어쩌다 화상통화를 할 때면 얼굴이 죽나 보이는 것이 괜히 마음에 쓰였다. 통장에 들어와 있는 생활비를 확인할 때면 둘을 하기도 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조금 그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가끔 통화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다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친정 아버지 칠순을 맞아 아내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되었다. 아이는 학교 때문에 못 오고 혼자만 들어온 것이다.



년 전 헤어질 때 서먹했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라 다정한 척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굴자니 그것도 이상했다. 아내가 특히 신경 쓰는 것은 부부관계였다.

떠나기 전에도 몇 년간 거의 부부관계가 없긴 했지만, 그때는 너무 미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으니 다시 해야 할

## 2년만에 만난 기러기부부

### 며칠 망설이다 못한 잠자리

### 공항서 본 남편의 문자

### “비아그라 다음에 써야겠네”

것도 같은데, 막상 하려니 그동안 안하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남편 마음이 어떤지 속 시원히 알 수 없으니, 하자고 먼저 덤벼들기도 그랬다. 괜히 망신이나 당하는 거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며칠이 흘렀다. 잠자리

에 들 시간이 되면 그녀가 먼저 슬그머니 비어있는 아이방에 들어갔고, 남편도 슬그머니 아이방으로 사라졌다.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아직 마음이 없는 모양이라고, 아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드디어 아내가 떠나는 날이 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친구부부와도 만났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아내는 속으로 이대로 가야 하니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내색은 않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까지 바래다 준 남편은 형식적인 인사 몇 마디를 끝으로 돌아섰고, 그녀도 돌아섰다. 그런데 비행기에 오르기 전 꺼두려고 꺼낸 핸드폰에 남편의 문자가 도착해 있다.

“비아그라는 다음에 써야겠네.”

처음에는 가슴이 좀 아팠다. 남편도 나처럼 내심 원하고 있었는데 표현을 못한 모양이구나. 그런데 잠시 뒤에 생각해보니 웬 비아그라가 싫다.

과연 미누라와 멋진 밤을 보내기 위해 일부러 구한 건지, 아니면 다른 여자와 쓰다 남은 건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가졌던 연민이 확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니까.



개그맨 유재석이 기자회견을 갖고 7월 6일 결혼 날짜를 발표했다.

## 검색절정 키워드

## 검색

## 국민 MC 유재석 “저 드디어 장가갑니다~”

이번 주 잊달아 들려오는 결혼소식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됐다.

노총각 개그맨 김수용(41)이 스타트를 먼저 끊었다. 김수용은 지난달 31일 대학원에서 만난 8살 연하의 신부와 결혼식을 올렸다. 팬과 스타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같은 날 개그맨 김시덕(27)도 미모의 스튜어디스와 결혼식을 올리면서 개그맨들의 결혼 러시에 동참했다.

노경은 아나운서와 공개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개그맨 유재석도 결혼 발표를 했다. 유재석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 6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네티즌의 부러움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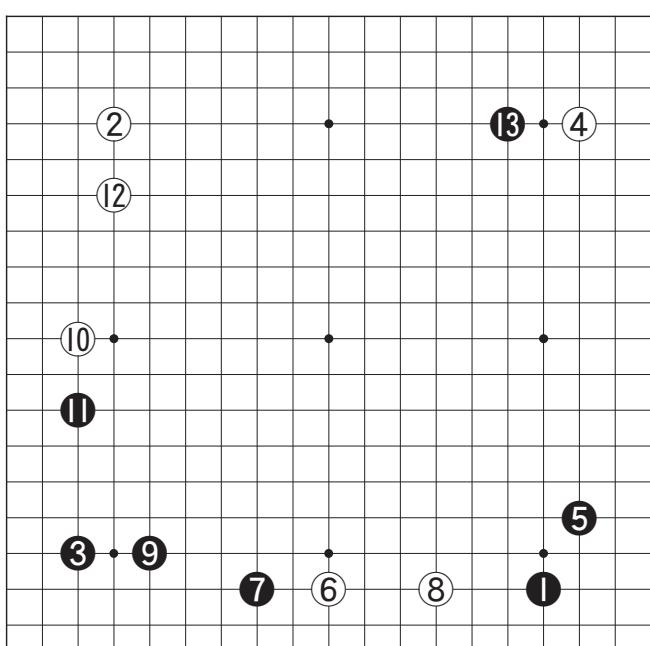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와 ‘슈퍼 팽구’ 김미현의 결혼 소식도 들려왔다. 연인 사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두 사람은 12월 12일 결혼식을 치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스포츠 스타 커플이 탄생하게 됐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네티즌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사망설이 나오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계

속되고 있다. 사망설이 끊이지 않자 지난 3일 미국 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이 사실 무근이라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여대생 시망설도 네티즌을 바쁘게 했다. 촛불 시위 도중 여대생이 전경의 강경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로 인터넷이 뜨거워졌다.

이에 대해 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촛불시위 참가 여대생 사망설’을 인터넷에 최초로 유포한 혐의로 40대 최모씨를 검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7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장인 대회

신예와 강호  
2회 1국 1보 (1~13)  
白 김영수 5단 黑 백승열 5단  
(전남교사회) (농협)

농협은 전통의 직장바둑 강팀으로 언제나 우승후보로 꼽혀온다. 전남교사회가 우승후보로 꼽히는 것도 팀원들의 전력이 안정되기도 했지만 그 중심에는 김영수 5단이 버티고 있어 전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백승열 5단은 이번에 직장대회에 처음 출장했다. 첫판에서는 창이 유통의 김현승 5단에게 석패, 이번이 두 번째 대국이고 김영수 5단은 난적인 조선대학교의 이한재 5단에게 신승을 거둬 패자의 스타트를 끊고 있다.

진남교사회는 언제나 입상권에 드는 강팀 중 하나로 김영수 5단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영수 5단은 특출나지는 않지만 언제나 입상권에 드는 인물로, 우승후보보다 오히려 더 경계를 받고 있는 안정된 전력의 소유자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바둑소식

## 김종수 지지옥션배 3연승

김종수 6단이 5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시니어 연승대회에서 이하진 3단을 상대로 280수 끝에 반집승을 거뒀다. 대회 3연승째이다.

김종수의 연승으로 남자 프로기사들로 꾸려진 시니어팀은 우승 고지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여류팀의 남은 선수는 루이아이웨이, 박진은 9단, 조혜연 7단, 김혜민 5단 등 4명뿐이다. 반면 8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시니어팀은 아직 여유가 있다.

김종수는 오는 11일 김혜민 5단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 상금은 우승 7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6일(음 5월 31일 丁丑)



36년생 기류가 담담다 막힐 곳을 살펴보라. 48년생 안도의 숨을 풀리니 재운전을 하라. 60년생 대고는 없지만 큰 복도 없다.

72년생 깨끗이 쪼개고 양덩이를 쳐켜든다.

73년생 고생도 기분 좋은 일도 없다. 85년생 현금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점검해야 막힘이 없으리다.

행운의 숫자 : 11, 30



37년생 주변을 살펴보라 난제가 보인다. 49년생 업무상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리하라. 61년생 손 아랫 사람과의 문거에는 삶이 하라. 73년생 고생도 기분 좋은 일도 없다. 85년생 평범한 하루이나 고생수는 있다.

행운의 숫자 : 20, 34



38년생 길사가 계속 되나 손아래 사람은 고생이 있다. 60년생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하라. 62년생 하늘 한복 우리과 보라 부끄럼이 없는 사람을 살펴보라. 74년생 할 일이 많으니 아침부터 서둘러라.

행운의 숫자 : 12, 32



39년생 문서는 품위가 서명은 천천히 살펴서 확인하라. 51년생 재물도 불안하고 妻( vợ )가 걱정된다. 63년생 친가 처가 암쪽에 부모님을 살펴보라 어른이 안 보인다. 75년생 자녀로 불편하니 대안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3, 35



40년생 유흥수에 속이 타니 조신해야 하리로다. 52년생 혈제간의 맹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한다. 64년생 개운차가 있으니 좌쪽을 살펴보라. 76년생 부부 일전이 예상되니 조심하며 보내라.

행운의 숫자 : 21, 28



41년생 뜻밖의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한다. 53년생 익심은 내지 말고 차분하게 돌아보고 밀리로 정리하라. 65년생 부부의 주변에 서 소생이 일어나니 나누면 걱정 없다. 77년생 나누면 배가 되니 모든 일이 즐겁다.

행운의 숫자 : 18, 44



42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라. 66년생 옛 것으로 대비하며 지내라. 68년생 생활이 바빠지니 부부간의 사랑으로 의기투합 쓰아보라. 78년생 직장과 남편이 경쟁에 치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4, 16



43년생 모든 일의 길로 연결되며 이사 수도 생기나 유행을 일으킨다. 55년생 응기 있게 전진해도 무리 없어 맛난다. 67년생 사랑은 이제부터다. 79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언쟁은 서로가 책임이다.

행운의 숫자 : 24, 43



44년생 계획은 있으나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진다. 56년생 빈 문서하고 눈물 날라. 68년생 친체현상이 나타나니 남에게 내 것 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80년생 마지막 고생이 암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7, 31



45년생 밭갈퀴는 가벼우나 깨끗한 마무리가 없다. 57년생 어른의 지혜를 펼려라 실수는 있으리라. 69년생 주일을 위해서 어너지를 충전하라. 81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 01, 42



46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58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분해해도 괴로워 하자마자. 70년생 고생이 볼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구나. 82년생 험한 아침이니 계획대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02, 41



47년생 큰 투자는 하자마자 손실이 걱정되니 내일로 미루라. 59년생 좋은 여성은 만날 수다. 준비하고 나가라. 71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인은 괴롭다. 83년생 순조롭게 진행하니 이웃과 신음을 쓸 드라마.

행운의 숫자 : 23, 43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lt;1176&gt;

## 오하요우 니흔고 &lt;1176&gt;

## 니하오 쟁구워 &lt;153&gt;

## 한자 이야기 &lt;793&gt;

These phone bills are so high.  
이 전화요금은 너무 비싸요.

A : These phone bills are so high.  
B : I told you. It gets expensive having a boyfriend out of state.  
A : But what can I do? I need to talk to him.  
B : Maybe you should write a letter.

A : 이 전화요금은 너무 비싸요.  
B : 멀리 주 밖에 있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돈이 많이 듣나요.  
A :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꼭 통화를 해야 하는 데요.  
B : 편지를 쓰는 것이 더 좋을 듯한데.  
\* 자네가 주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 Maybe you should pay attention.

毎日, 迎(むか)えに行(い)くんですよね.  
매일 마중하러 갔습니다.

A : 滾谷驛(じゅわき)의 銅像(どうぞう)이 되어 있는 忠犬(ちゅうけん)ハチ코의 映畫(えいが)을 봤던ことがあります.  
B : 응, 주인이に戻る 시간에 興(おき)て 每日, 迎(むか)えに行(い)くんですよね.  
A : 주인이亡(な)아 되어서からは 꼭 맞춰 매일 마중하러 갔습니다.  
B : 감동적인(かんどうてき)나 söz입니다.

A : 시